



희망찬 새해를 기원하며... 코로나19 공포가 우리네 일상을 지배한지 3년째, 각종 사건사고와 유례없는 고물가 등으로 힘겨웠던 다사다난했던 2022년 임인년(壬寅年) 한해도 어느덧 저물고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할 정도로 일상은 정상화되고는 있지만, 바이러스와의 지리한 싸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암울한 사투 속에서 우리는 또 2023년 계묘년(癸卯年)을 맞고 있다. 새해에는 어두운 그림자들을 쫓아내고 달리는 차량의 궤적처럼 시원한 한해가 되길 기대해본다. /광주광산구 산월나들목=김애리 기자

## 광주시 “복합쇼핑몰 모든 가능성 열어 놓고 검토”

‘더 현대 광주’ 행정절차 원스톱 지원 신속 처리  
‘신세계 그랜드 스타필드’ 제3자 공모 방식 적용  
“market 판단에 맡길 것” 복수 추진 배제 안해

현대에 이어 신세계가 복합쇼핑몰 사업 계획을 제출한 가운데 광주시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복합쇼핑몰 사업을 추진기로 했다. 이는 복합쇼핑몰 복수 추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돼 향후 광주시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시장(market)의 판단에 맡긴다는 게 시의 일관된 기조”라며 “제안서가 들어올 때 거부할 권리는 없다”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강 시장은 “어제(28일) 신세계프라퍼티가 어등산 관광단지를 대상으로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복합쇼핑몰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서진건설의 광주공동체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단과 신세계 그룹의 복합쇼핑몰 사업계획서 제출로 17년의 긴 세월 동안 난항을 겪어오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새로운 희망의 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이날 신세계프라퍼티의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복합쇼핑몰’ 사업계획서 원본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내년 1월 시·구 공무원들로 구성된 신활력행정협의체를 개최해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의 사업계획서 설명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본격 검토에 착수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시민·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시민 발표 이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서는 관광단지조성계획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신속한 검토, 지역상생방안 마련, 국가지원 요청을 위한 국비사업발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계획이다.

같은 복합쇼핑몰 건립이지만 지난 11월18일 현대백화점그룹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더 현대 광주’와 이번 ‘신세계 그랜드 스타필드’는 절차가 다르다.

‘더 현대 광주’는 기업 소유 부지에 복합쇼핑몰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전 협상 과정을 통해 사업 내용이 조정되고 구체화된다. 그 결과에 따라 신활력행정협의체에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원스톱 행정지원이 이뤄진다.

‘신세계 그랜드 스타필드’는 시가 소유한 공유지에 기업이 투자 의향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항으로 앞으로 별도 공모 절차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및 기업과의 협상 과정 등을 통해 사업이 진행된다.

신세계프라퍼티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현대백화점과 달리 제3자 공모 방식으로 최종 사업자가 선정될 전망이다.

제3자 공모는 법에도 규정이 있는 제도로 투자 의향 기업과 검토, 협의하면서 다른 사업자에게도 참여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세만금 1호 방조제 관광 명소화,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민간 투자

사업 등이 대표적 사례다.

제3자 공모를 하더라도 신세계가 단독으로 참여할 경우 “적격성 평가”를 하게 되며 행정 절차는 최소 6개월에서 9개월로 예상된다.

그동안 어등산 개발의 발목을 잡았던 상가 면적(7천평)과 관련, 강 시장은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시의 공공성이라는 기막힌 타협점이 무엇일지 고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며 “금과옥조처럼 2005년에 어땠기 때문에 2016년에 어땠다라는 것을 뛰어넘는 고민을 하겠다는 것이 핵심으로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의 문제는 너무 선입견이나 앞서 나갈 필요는 없다. 선입견을 갖거나 예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강 시장은 “앞으로 일련의 과정에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면서 공공성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광주공동체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할 계획”이라며 “투명성과 공정

성, 신속성에 기초해 어등산 관광단지를 대한민국 넘버원(NO.1) 관광 랜드마크로 만들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검토에 시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통 빅3 중 사업계획서는 물론 사업

참여 여부 발표 시기조차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롯데그룹에 대해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은 “(롯데측이) 곧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전했다. /박선강기자

## 광주시·전남도, 국·과장급 인사 단행

광주시와 전남도가 29일 국·과장급 인사(1월2일자)를 단행했다. ▶명단 18명  
광주시의 국·과장급 인사는 49명 규모로 민선 8기 시정현안 추진을 위해 개인 희망과 보직경로, 교육훈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조직 안정을 위해 전보를 최소화하는 속에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방점을 찍었다.

국장급인 3급은 ▲이돈국 군공항교통국장 ▲주재희 경제창업실장 ▲김용승 인공지능산업국장 ▲염방열 공무원교육원장 ▲박상백 종합건설본부장 ▲박정환 광주경제자유구역청 혁신성장본부장 ▲김종화 북구 부구청장 ▲오영걸 광산구 부구청장 등이다.

전남도의 인사 규모는 국장급 승진·전보 11명, 부단체장 6명, 준국장급 5명, 과

장급 승진·전보 37명 등 총 59명이다.

유호규 지역계획과장이 건설교통국장으로 승진하고 유현호 보건복지국장은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김기홍 자치행정국장은 관광문화체육국장으로, 박현식 여수부시장이 자치행정국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교육을 마친 이상심 전 강진부군수가 보건복지국장에, 김정완 전 COP28유치추진단장이 인재개발원장에 각각 임명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파견을 마친 안상현 전 경제에너지국장이 동부지역본부장을 맡게 됐다.

여성은 (준)국장급에 3명이 임명됐고 과장 승진자도 4명 선발되는 등 여성 간부공무원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김재정·박선강기자

희망2023나눔캠페인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미래

성금 접수 계좌

• 광주사랑의열매 : 053-107-999990(광주은행)  
• 전남사랑의열매 : 301-4000-3000-01(농협은행)

동복댐 저수율 26.10%

물 공급 가능 일수 : 141일

제10기

##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

당신의 삶을 다시 디자인 할 기회!  
Redesign your life!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제10기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요강**

**지원자격** 기업경영진 및 관리자, 지자체장 및 의원, 기관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계 전문가 등

**모집인원** 00명

**교육기간** 2023년 3월 개강 ~ 12월 종강 (연 16회)

**강의시간** 격주 화요일 오후 (19시~21시, 18시부터 식사)

**강의장소**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전형방법**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반영합판 사진 1매, 세금계산서 요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수강료 : 380만원(부가세 포함)
- 입금계좌 : 광주은행 (016-107-391900 : (주)광주매스컴)
- 접수마감일 : 2023년 2월말
- 문의 :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 (062-650-2074)
-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

권대중 교수

김계훈 교수

김지욱 교수

문달주 교수

박서기 소장

박재희 원장

이경상 교수

이종선 대표

이창용 미술사

임진모 음악평론가

오정혜 국악인

정호승 시인